



## (주)성원애드피아, 신사옥 오픈하우스 개최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150명 신사옥 준공 축하

(주)성원애드피아(대표이사 정대원)는 지난 10월 15일 성수동 본사에서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오성상 신구대학교 교수, 홍사룡 경기도인쇄기술협회 회장, 김용찬 월간PT 발행인 등을 비롯한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이날 오픈하우스는 (주)성원애드피아 홍보영상 시청, 정대원 대표이사 및 최태자 부사장의 기념사, 이한성 국회의원 및 오성상 신구대학교 교수의 축사, 스포츠댄스 1부 박기남, 김남이 선수의 축하기념 퍼포먼스, 청운 김영배 박사의 서예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대원 대표이사는 개식 기념사를 통해 “1995년 1월 충무로 인쇄 골목에서 인쇄업 첫발을 디딘 성원은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바탕으로 수많은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며 오늘날의 성원애드컴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더 큰 원동력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고객사와 협력

업체 여러분들이 성원을 믿고 지지해준 신뢰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성원애드피아는 고객만족과 업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태자 부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모든 행운은 참석해주신 여러분 덕이라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일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쇄사 소개영상에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1995년 창립 이래 이어져온 성원의 혁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객사와 협력사의 협조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최태자 부사장의 언급처럼 인쇄업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축하했다.

오성상 신구대학교 교수(한국인쇄학회 회장)는 축사를 통해 “오늘의 신사옥 준공식은 정대원 사장이 2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경험과 의지로 일군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인쇄야말로 예술의 종합체이고 미래가 보장된 지식기반 산업은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인쇄인 모두 더욱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회사 견학과 연회장에서의 만찬 연회가 이어졌다. ↻

